금속투쟁속보 11호

발행일 2025년 2월 20일(목)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금속노조 올해 사업계획 결정 미뤄져

59차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산회 … 3월 4일 속개하기로

금속노조가 성원 부족으로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를 산회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20일 오후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5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재적 대의원 846명 중 과반이 넘는 566명이 참석해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지난해 사업평가·결산 건만 확정했다.

이날 몇몇 대의원들은 2024년 사업을 평가하며 노조의 회계 공시 폐지 투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춘경 대의원(경기지부 에스제이엠지회)은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한다. 노조가 회계 공시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묻기도 한다” 라고 현장 분위기를 알렸다.

“평가에 노조회계 공시 폐지 투쟁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회계 공시·세액공제 연계 폐기 법안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금속노조가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국제 노동계를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며 “조합원들 고민은 당연하지만, 금속노조가 윤석열이 노조 파괴 목적으로 만든 회계 공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회계 공시 폐지를 위해 2024년 금속노조가 펼쳐온 내용을 사업평가에 구체적으로 추가 적시하겠다.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노력과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두 번째 안건인 13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5년 투쟁방침 건을 다루며 대의원들에게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중심 민주주의 토대 마련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 ▲산업·노동 정책 개입 확대 ▲노동운동의 사회 영향력 확장을 올해 투쟁 목표로 제안했다.

노조는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 수정안(김우용 기아차지부, 윤석열 파면·퇴진을 위한 금속노조 3월 총파업 성사)을 묻는 과정에서 성원 부족을 확인했다. 정회 후 노조 임원과 각 지부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산회를 결정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라며 “3월 4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대의원대회를 속개하겠다” 라고 밝혔다.